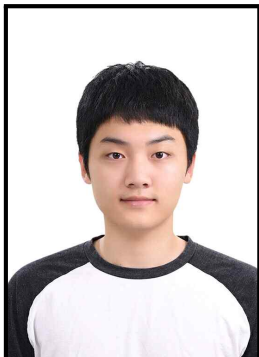


# 이력서



한글 이름	이호성	영문 이름	Ho Sung Lee	학점	4.06 / 4.5
사이트	soh9646.tistory.com/			성별	남
연락처	010-7190-9646	SNS	KakaoTalk(ID: andre15@hanmail.net)		
E-mail	zdlghtjdz@naver.com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사장1길 9 601호				

##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교명 및 전공	계열	비고
2015.03.-202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사범계열	(졸업예정)
2011.03.-2015.02.	제주제일고등학교	자연·과학계열	제 58회

## 교육/연수

기간	활동 내용	세부 사항	기관
2020.08 ~ 2020.11	SKT와 함께하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AI스피커 활용 서비스 상품 기획·개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9.06 ~ 2019.08	K-SW 스쿼어	Purdue 대학의 “Hi-tech ScareCrow” 프로젝트 참여	제주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
2018.06 ~ 2018.07	GTU(Global Teachers' University) 프로그램	Indiana State University에서 진행	제주대학교 GTU 사업단
2018.05 ~ 2018.06	“제주로 On 코딩” 전문강 사 일반 과정	수료	제주특별자치도

## 어학

언어	시험	점수	기관
영어	TOEIC (2018.08.26.)	805	ETS

## 강의경험

기간	과정명	직책	기관
2019.03.~2020.06.	SW 수업 멘토 (디지털 설계 및 컴퓨터 구조)	멘토	제주대 SW융합교육센터
2018.06.~2019.06	제주로 On 코딩 - 지역아동센터 활동	강사	제주로 On 코딩

## 수상내역

기간	상세 내용	기관
2019.11.27.	2019년 2학기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금상	SW융합교육센터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	등급	발행처
2021.02.14.(예정)	중등 정교사 교원자격증 (정보·컴퓨터)	2급	교육부
2017.02.07.	한국사 자격증	1급	국사편찬위원회

연구 활동			
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 협력기관
2019.06.-2019.12.	대중교통 버스 승·하차 계수 시스템 개발 연구	김성백(제주대)	제주대 SW융합교육센터

주요 논문 (논문지)					
논문명	주/교신	저널명	페이지	게재 연월	참고
IoT와 딥러닝을 활용한 제주 대중교통 버스 승·하차 계수 시스템 개발 연구	주	정보과학회논문지	(예정)	2020. 01 예정	

기타			
기간	제목	책임자	비고
2020.01~2020.07	임베디드 연구실 관리 책임자	김성백(제주대)	
2019.01~2020.01	임베디드 연구실 연구원	김성백(제주대)	

자기소개
------

---

### [저의 가치관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입니다.]

저는 꾸준함을 통해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기 계획을 자주 설정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여 그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장기 계획 속에서 많은 단기 계획에 집중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차 미태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수 방식 연구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진행 상황, 이전까지 진행한 내용을 정리하고,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프로젝트 방향을 수정하고 개선해나갔고, 금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성공한 이유가 계획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꾸준하게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꾸준함을 업무에도 적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 [원리를 알고 싶다는 탐구심으로 3D 프린터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이 많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터제작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체험해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D 프린터 관련 부품 및 키트를 구매하여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저렴한 단가의 제품이라 좋지 못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4일간 조립에만 매달린 결과 3D 프린터가 작동했지만, 인쇄 결과물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프린팅이 될 수 있도록 3D 프린터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고,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여 프린터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상태의 프린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품을 만들며 개조도 진행했습니다.

프린터를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얻는 경험들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이러한 탐구심과 호기심으로 접근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